



스페인, 구제금융 신청 가시화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의 국채매입 지원을 받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공식적 구제금융 신청이 가시화 됨.

-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ECB는 즉각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어¹⁾ 스페인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조율중임.

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연합(EU)의 새로운 구제금융 체제를 활용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.

- 스페인은 유로안정화기구(ESM)²⁾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첫째, ESM이 단독으로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모두 사들이거나 둘째, ESM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신용한도(credit line)를 설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
- Wall Street Journal 등은 스페인 정부가 ESM에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신용한도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액수의 자금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수시로 빌려 쓰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.

■ 최근 스페인 국채시장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구제금융 신청이 가능해짐.

- 10월 16일 스페인의 국채 입찰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발행 금리도 1개월 전보다 하락
 - 국채 입찰 규모는 49억 유로(70조 9,400억 원)이며 12개월 만기 국채발행 평균 금리는

1)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로존 유럽안정화기구에 지원을 신청해야 함.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신청에 동의하면 스페인정부는 경제 및 예산 개선조건을 유로존 및 IMF와 합의한 후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 후, 유럽중앙은행은 채권시장에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수 있음.

2) 2012년 10월 출범한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.

2.82%로 1개월 전 ECB가 무제한 국채매입(OMT)을 발표하며 시장을 안정시켰던 당시의 2.83%보다도 낮게 책정됨.

-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방식이 아닌 여신한도 설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추가 긴축조건은 없을 것으로 보임.
- 스페인의 신행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추가 긴축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
 - 라호이 행정부는 2012년 3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경험하였고 10월 21일 갈리시아와 바스크 지방 선거에서도 승리를 확신 할 수 없는 상황
- 또한 스페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그간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독일 등의 반발도 완화 시킬 수 있음.
 - 독일 재무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함.

(Wall Street Journal, 10/16)